

**안전·안심
민생 구청장**



**1 진짜 일꾼
진교훈**

배포일	2023. 10. 6.(금)	담당	도건 (010-9686-6068)
-----	-----------------	----	--------------------

‘민생구청장’ 진교훈 ‘2혁신 3상생’ 강서구 경제공약 발표

2대 경제혁신과 3대 상생전략, 미래경제·청년 일자리 넘치는 도시 만들 것

‘안전·안심·민생구청장’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6일 ‘2혁신+3상생’ 공약을 발표하고, “마곡 개발의 경험에 2대 경제혁신과 3대 상생전략을 더해 강서를 미래경제 도시, 일자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강서는 마곡 개발 후 GRDP가 123% 성장하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불균형, 고도제한과 공항 주변지역 쇠퇴,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부족 등 도약을 위한 숙제가 쌓여있다”고 지적하고, “강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의 ‘2대 경제혁신과 3대 상생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MICE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마곡 일대를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지정해 혁신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김포공항-마곡MICE복합단지-서울식물원-LG아트센터-가양스타필드를 하나로 묶는 (가칭)‘신경제축’ 구성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 부지 신속 개발 △첨단과학 기술융합 캠퍼스 조성 및 공공·민간 R&D 센터 차질 없는 건립 △마곡통합 신청사 26년 적기 완공 등이 핵심 내용이다.

둘째, 현 강서구청 부지와 인근 상권을 원도심 문화상업지구로 집중 육성한다. △현 강서구청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일반상업지구 종상향 △강서구청 부지 지역을 원도심문화사업 지구 핵심 경제축 육성 △화곡중앙시장 내 특화상점 및 창업지원 공간 등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기업의 조화 속에 상생경제를 적극 실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서사랑상품권 증액 발행 예산 확보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위한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 추진 △대규모 점포 등장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점검 통한 상생협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넷째, 마곡 입주기업·항공 관련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마곡 입주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 적극 지원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복지지원 △마곡·항공기업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역 청년 인턴십 채용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 등이 핵심이다.

다섯째, 김포공항 혁신개발의 성과를 강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공항 개발이익의 사업대상지 외부 도시재생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재투자 △공항 주변지역 내 생활SOC 및 공공시설 확충 △남부순환로 지하화 및 상부공간 공원화로 물리적 연결성 증대 등을 통해 공항이 강서구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진 후보는 “마곡 개발 성공으로 강서구를 서울에서 가장 빠른 성장으로 이끈 민주당의 경험에 마곡과 원도심 2대 경제혁신과 3대 상생 경제전략을 더하겠다”고 강조하고, “강서를 혁신과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경제 도시,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치는 일자리 도시로 만드는 ‘민생구청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끝

※ 진교훈의 다섯 번째 약속 전문 첨부

진짜일꾼 진교훈의 다섯 번째 약속

<마곡의 성공에 ‘2혁신+3상생’을 더해 강서경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강서구는 70년 이상 지속된 고도제한 규제와 2001년 인천국제공항 집중 육성 정책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축이던 김포공항까지 쇠퇴하면서 심각한 소외와 낙후에 방치된 서울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는 마곡 개발의 성공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LG, 코오롱, S-oil, 롯데, 이랜드, 넥센 등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R&D센터가 차례로 입주하고, 약 16만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하며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곡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 2010년 강서구는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7조 5천억 원으로 서울의 12위 경제 규모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마곡 개발이 본격화된 2020년 현재는 16조 8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11년간 무려 123%가 성장한 것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강서의 실질 지역내총생산 규모도 서울 자치구 중 9위로 그 사이 3단계가 상승했습니다.

2023년 현재 강서구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그늘도 깊었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불균형, 고도제한과 공항 주변 지역 쇠퇴,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부족 등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숙제도 쌓여 있습니다. 마곡개발을 성공시킨 민주당의 노하우와 경험에 ‘2대 혁신축과 3대 상생 경제전략’을 더해 강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첫째, MICE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마곡 일대를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지정해 혁신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김포공항-마곡MICE복합단지-서울식

물원-LG아트센터-가양 스타필드'를 하나로 묶는 (가칭)'신경제축'은 문화예술 상업지구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전망·문화시설이 입주할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 부지도 조속히 개발하여 서울식물원과 연계된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공·민간 R&D센터도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곡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융합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마곡 통합 신청사도 26년 적기 완공시켜 함께 조성되는 열린 광장, 쉼터, 어린이 집, 키즈 카페, 문화쉼터, 북카페 등 시민 여가시설과 문화공간이 충분히 확보토록해 문화예술 사업지구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한층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 강서구청 부지와 인근 상권을 원도심 문화상업지구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현 강서구청 부지에 공연장, 갤러리, 스튜디오 등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켜 화곡역 먹자골목에서부터 현 강서구청 부지 지역을 '원도심 문화상업 지구의 핵심 경제축'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인근 화곡중앙시장에는 특화상점, 창업지원 공간 등의 설치를 병행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기업의 조화 속에 상생경제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서사랑상품권 증액 발행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인터넷 기업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양 스타필드 등 대규모 점포 출연에 따른 지역상권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기업과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마곡 입주기업, 항공관련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곡 입주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복지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곡·항공기업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와 지역 청년 인턴십 채용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김포공항혁신개발 성과를 강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포공항 혁신이 단순히 공항시설에만 국한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사업대상지 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해 지역의 상생 개발을 견인토록 할 것입니다. 공항 주변지역에 부족한 문화·체육·보육시설, 주차장, 일자리센터 등 생활SOC과 공공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공항 인근 남부순화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의 공원화를 통한 물리적 연결성을 높여 공항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저 진교훈, 마곡 개발의 성공으로 서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끈 민주당의 경험에 마곡과 원도심 2대 경제혁신과 3대 상생전략을 더해 강서를 혁신과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경제 도시,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치는 일자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